

광주 영어마을 전면 재검토

朴시장 핵심공약... “年 수십억 적자 예상”

광주시가 박광태 시장의 민선 4기 핵심 공약사항인 영어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3월 ‘21세기형 지역내외 양성 전략 프로젝트’ 기본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중 핵심사업으로 영어마을 조성을 추진해 왔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가 영어마을 전면 재검토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최대 100억원

이상인 조성 비용과 ▲연간 수십, 수백억원에 이르는 운영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데 일차적 이유가 있다. 광주시로서는 사실상 영어마을 운영에 따른 재정 적자를 감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영어마을이 생기면서 영어마을 자체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영어마을의 원조격인 경기도 파주·안산 등 2곳의 영어마을 연간 운영적자가 200억원이 넘는 등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모든 영어마을이 규모에 따라 연간 적개는 수십억원에서 100억원이 넘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전시는 시장 선거 공약이었던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막대한 사업비와 운영적자 등의 이유를 내세워 사실상 전면백지화한 것도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한 도시사 핵심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왔던 경북 영어마을 사업도 도의회가 막대한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총 예산 300억원 중 2007년도 예산 100억원을 전액 삭감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광주시가 지난 200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원한 경기 파주 영어마을 등 현재 운영중인 전국 10곳의 영어마을을 살사한 결과, 대규모 외국인 마을을 새롭게 조성한 파주의 경우는 건립비만 850억원이 들었으며 나머지 기존 시설들을 리모델링한 영어촌

대학입시 무료 설명회
18일 오후2시 - KT전남본부 3층 대강당



광주영보사는 광주대성학원과 공동으로 대학입시 설명회를 오는 18일 오후2시 KT전남본부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서울 대성학원과 광주 대성학원 입시전문가들이 최신 분석자료와 토대로 전국 주요대학 학과의 입시요강과 지원가능성 분석 등 중점적인 대학입시전략을 소개합니다. 2007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2월 18일(월) 오후2시
- 장소 : KT전남본부빌딩 3층 대강당(중구형 옆)
- 강사 : 이명태(서울대성학원 평가실장) / 우문남(광주대성학원 진학실장)
- 문의 : 전화 062-227-0655 / 57 / www.yjdaesung.com

주최 : 光州日報社 · 광주대성학원
주관 : 서울대성학원 · 광주대성학원

합마을은 50억원 내외에서 많게는 300억원 이상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운영 적자는 경기도 안산·파주 2곳의 영어마을이 연간 220억원이나 됐으며, 나머지 영어마을도 적자가 10억원~30억원에 달했다. 특히 해당 지자체들은 이 같은 운영적자에 대한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태였으며, 매년 적자폭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영어마을이 공약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경제적 타당성과 성공 가능성이 약할 경우에는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영어마을은 시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전국의 모든 시설이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 추진 여부 및 대체 사업 발굴 등 다각적인 연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취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당선자가 14일 자정(한국시각) 뉴욕 유엔본부의 총회 회의장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역사적인 한국인 사무총장 시대를 열었다. 이날 유엔 총회에서는 우선 이임하는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업적을 기리는 결의안을 박수로 채택하고 이어 하야 라사드 알-칼리리 총회 의장 주 관으로 반 사무총장의 취임선서식이 거행됐다. 반 사무총장은 취임선서식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반 사무총장은 지난 2월14일 후보 출마 공식 발표를 전후해 현지 외무 장관이란 장점을 살려 올 해 아프리카 카를 8번이나 방문할 정도로 부지런

히 유엔 회원국을 찾아다녔으며 이러한 노력은 7월24일에 실시된 1차 예비투표 1위로 이어졌다. 9월14일과 28일 실시된 2, 3차 예비투표에서 각각 14표와 13표의 찬성표를 얻어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한 반 차기 총장은 10월2일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투표용지 색깔을 구분해 실시한 4차 예비투표에서도 반대없이 찬성 14표를 획득, 초선 사무총장으로는 드물게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사무총장의 꿈을 이뤘다. /연합뉴스



예비 여대생 스튜어디스 체험 “다같이 스마~일.” 광주여대 스튜어디스 학과에 수시 합격한 예비 여대생들이 14일 광주여대가 마련한 ‘1일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해 아시아항공 승무원의 시범을 따라 미소 짓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서남권발전추진단 年内 설치

국무조정실 산하에...전남도 전남팀 구성

국무·무안·신안권과 해남·영암을 묶류거점 및 특화산업단지, 복합관광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서남권종합개발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서남권발전추진단’이 올 연말까지 국무조정실에 설치된다. 국무조정실과 전남도는 14일 정부가 낙후지역 투자 촉진정책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 종합개발계획을 구체화할 서남권발전추진단을 연내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국(局) 단위 규모인 서남권발전추진단은 기획총괄·사업추진·기반조성 등 3부와 6팀 26명으로 구성되며 연말까지 기구를 설치하고, 내년 1월 중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서남권발전추진단 개소를 위해 법적제도의 심사를 마치고 기구 설치를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 중이다. 단장은 차관급인 박종구(프로필 3면)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맡는다. 이로써 지난달 24일 정부의 사업계획 발표, 같은 달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무안을 방문해 밝힌 서남권종합개발계획 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실무기구가 만들어져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무안 방문 당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J 프로젝트) 부지(간척지) 확보 지원 ▲기업도시 투자기업에 획기적인 혜택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비 지원 ▲목포~대불산단 삼학대교 조기 완공 ▲목포 신항만 12선석 규모 유지 등 구체적인 사업 지원을 약속 바 있다. 서남권종합개발계획은 무안국제공항과 무안~광주고속도로, 목포신항 등 현재 추진중인 주변 인프라를 완성하고 무안기업도시, 해남·영

이승철 광주공연
내일 오후 7:30 광주염주체육관
광주일보사 (062)220-0541, 1644-1276

포항공과대학교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광주 ↔ 해상도 친선기 휴향
크리스마스/연말을 골프와 관광의 최적지인 **하이난**에서

☆담 동역의 원스☆
12/24, 28, 31

관광 4일 ₩749,000 / 5일 ₩799,000
항공료 포함 시 추가는 60% 할인 (항공료 제외 시 100%)
왕복항공 + 물고기온천 + 뽕목욕 + 호텔

2006.12.21 ~ 2007.2.11

1인 1실 3박 4일 (항공료 포함)	₩749,000
1인 1실 4박 5일 (항공료 포함)	₩799,000
1인 1실 3박 4일 (항공료 제외)	₩649,000
1인 1실 4박 5일 (항공료 제외)	₩699,000